

더연합타임즈  
모바일 보기메디슨그룹  
Medison Group

www.medisongroup.co.kr

고객을 향한 단 하나의 진심!



제1415호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 한동훈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출마 안해” “승리 위해 무엇이든 할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락의 변을 밝히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해야만 공천…이재명의 민주당과 달라야”**

**‘김여사 특검법’에는 “총선용 악법…당과 대응방안 논의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일정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승리를 위한 협상을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동료 시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다

을 아기는 분은 즉시 출당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한 위원장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있는 분들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총선을 위한 악법이라는 입장은 갖고 있다”고 기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당에서,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선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른바 ‘수직적 당정관계’란 지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여당과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자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기관이다. 거기서 수직·수평적 얘기가 나올 게 아니다.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송원기 기자

## 경복궁 담장 ‘낙서 지우기’ 재개…내년 1월 4일 공개

스프레이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이 낙서 흔적을 지운 뒤 내년 초 공개된다.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의 낙서를 제거하는 작업을 26일 재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전국을 강타한 최강 한파로 작업이 중단된 지 약 1년 만이다.

이날 오전 작업을 시작한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관계자들은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 흔적이 남지 않도록 기준에 작업한 부분을 확인하고 세척 작업 등을 했다.

이들은 29일까지 낙서 흔적을 지우고 주변 석재와 색을 맞추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자문, 모니터링(관찰)을 거쳐 내년 1월 4일 담장 주변에 설치한 가림막을 걷고 대중에 공개할 방침이다.

현장의 한 관계자는 “스프레이로 오염된 부분은 어느 정도 완료했고, 미세하게 다듬는 작업이 남았다. 기상 상황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을 마무리 짓는 단계”라고 말했다.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구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경복궁 서측의 영주문 육축(陸築·성문을 축조하기 위

해 큰 돌로 만든 구조물)에는 문을 가운데 두고 좌·우측 6.25m 길이 구간에서 낙서가 확인됐다. 국립고궁박물관으로 들어가는 작은 문(쪽문)의 경우 왼쪽 8.1m, 오른쪽 30m 등 약 40m에 걸친 구간에서 스프레이 흔적이 남아 이를 제거해 왔다.

문화재청은 구간별 석재 상태와 작업 상황을 고려하며 제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쪽문 오른쪽에서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담장은 2010년 복원 공사를 하며 조성한 터라 비교적 상태가 좋은 편이지만, 쪽문 왼쪽 담장은 1975년에 쌓은 텃에 작업이 만족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화학 약품을 끌라 오염물을 닦아 내는 것부터 레이저 기기를 사용한 기법, 입자가 고운 돌가루를 강한 압력으로 분사해 표면의 오염물을 벗겨내는 기법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됐다.

문화재청은 내년 1월 복구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하면서 궁궐 등 주요 문화유산의 외곽 순찰 인력 증원, 폐쇄 회로(CC)TV 설치 확대 등을 담은 종합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 황순길 기자

## “도봉구 아파트 화재, 부주의로 인한 사고 가능성”

현장 합동감식 결과…“누전 등 전기적 요인, 방화 가능성 낮아”

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소방 당국·한국전기안전공사와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20분까지 총 21명의 인력을 투입해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을 합동 감식한 결과를 이렇게 밝혔다.

경찰 등은 합동감식에서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301호 작은 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명확한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감식 후 현장에서 나온 결정적 증거물을 입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전기 기구의 오작동이나 누전 등에 의한 전기적 요인이나 방화로 인한 발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 다른 요인도 모두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정적 증거물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남은 조사에서 관련자 진술이 변경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화재경보기 작동 등에는 이상이 없었다. 다만 방화문이 모두 열려있었고 아파트 1층이 필로티 구조로 외부 공기가 활활하게 유입돼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필로티는 1층을 벽면 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둥으로만 설치하는 개방형 구조를 뜻한다.

2001년 준공 당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는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은 6층 이상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4



성탄절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26일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시 57분께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차량 60대와 인력 312명을 동원해 신고 약 4시간 만인 오전 8시 40분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 불로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난 301호는 전소됐고 401·501호는 밭코니 등이 일부 소실됐다. 소방 당국은 재산 피해 규모를 1억 980만 원 상당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봉구청에 따르면 이재민은 8세대·23명으로, 이들은 아파트 인근 모텔 3곳에서 임시 거주 중이다. 숨진 채 발견된 4층 거주민 박모(33)씨는 3층에서 난 불이 빠르게 위층으로 번지자 아파트 경비원들이 주민들의 대피를 돋기 위해 가져다 놓은 재활용 포대 위로 2세 딸을 던진 뒤 7개월 짜리 딸을 안고 뛰어내렸다.

박씨의 뒤를 따라 뛰어내린 아내 정모(34)씨와 아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으나 머리를 크게 다친 박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끝내 숨졌다.

애초 목격자 증언 등에 따라 정씨가 먼

저 뛰어내리고 남편 박씨가 아기와 함께 마지막에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이후 아내 정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씨가 나중에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박씨 가족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다 6개월 전 더 넓은 평수를 지난 이곳에 전세를 얻어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망자인 임모(38)씨는 10층 거주자로, 화재 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모님, 남동생을 먼저 대피시키고 가장 마지막으로 집에서 나와 불을 피하려 했으나 11층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박씨와 임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각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께 시신을 부검했다. 1차 소견에 따르면 박씨는 ‘여러 둔력에 의한 손상’, 임씨는 ‘연기 흡입에 의한 화재사’로 사인이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에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조직·독극물 검사 등을 한 뒤 최종 사인을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 성동준 기자

서울시  
SEoul MYSOUL

지하철

버스

따릉이

기후위기 대응까지

카드  
한 장으로

월 65,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Climate Card

Tmoney

기후 동행  
SUBWAY BUS BIKE 카드

# 기후동행카드

문의: 120 다산콜

# 尹 “공직자, 현장 수시로 찾아 국민 숨소리 하나 놓치지 말라”

5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상 수여…국무위원 전원 참석



윤석열 대통령, 오혁진 해경 경위에게 옥조근정훈장 친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공직자들에게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도록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공직자 모두의 헌신이 곧 국민과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들에게 직접 상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상을 시상한 것

은 2018년 이후 5년 만으로, 이날 시상식에는 역대 최초로 국무위원들도 전원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다. 올해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상식과 공정·역동적 경제·따뜻한 동행·자율과 장의 등 4개 분야에서 총 55명의 수상자가 선발됐다.

낙농업계와 소통을 통해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한 농림축산식품부 흥angu 사무관, 830억원 상당의 기술 유출 사법 9명을 검거한 창원 해양경찰서 오혁진 경위, 20년 동안 수난 현장에서 활동해온 한정민 소방경 등이다. 수상자들에게는 특별 승진과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의 인사 특전이 부여된다. / 송원기 기자

## 김홍일 “권익위원장이든 방통위원장이든 봉사하는 자리”

“가짜뉴스, 언론 위축 없게 오보 제외해야…지상파 재허가 최우선 현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6일 “국민권익위원장이든 방송통신위원장이든 동일하게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여 만에 방통위원장으로 옮기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법률 전문성과 공직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방통위에 주어진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조직을 원활히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받고, 내부 전문가인 방통위 상임위원 및 직원들과 논의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방통위 최우선 현안으로 김 후보자는 “올해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라고 답변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만 있고, 김 후보자가 임명돼도 2인 체제인데, 이 체제에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방통위 설치



최재진에 둘러싸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법에 2인 이상 위원이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조속히 5인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올해 정치권에서 큰 쟁점이 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의의적으로 왜곡하여 공개적으로 퍼트리는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언론의 비판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자·오보·사소한 오류 등을 제외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신뢰 자체를 촉진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포털 뉴스의 알고리즘 문제에 관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포털 뉴스 추천 및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강현우 기자



목욕탕 여탕 내 갑전 사고로 사망자 3명이 발생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 입구에서 24일 오후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협동감식반이 협동 감식을 하고 있다.

## ‘욕탕서 3명 갑전사’ 세종시 목욕탕 누전 여부 등 감식

입욕객 3명이 갑전돼 숨진 세종시 조치원읍 한 목욕탕에서 26일 2차 협동 감식이 진행됐다.

세종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 협동감식반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목욕탕 2차 감식에 들어갔다.

박충서 세종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날 감식에 앞서 “탕 내에 있는 전기

이와 관련,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탕이나 목조 내 방수가 안 될 경우 물이 콘크리트 밑으로 들어간다”며 “목욕 설비나 전선 노후화로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닿을 경우 갑전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39년 전인 1984년 12월 사용승인됐다.

2차 협동 감식서 전기 시설 연결하는 지하 배전반 위주 조사

### 전문가 “욕탕 누수로 인한 갑전 가능성 있어”

시설과 한증막으로 가는 지하 배전반 위주로 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며 “지하 배전반을 조사한 후에는 욕탕 내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자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 부검도 오늘 진행한다”며 “그 결과와 1·2차 협동 점검 결과를 종합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온탕 안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누전 원인을 밝히기 위한 배전함 등 전기공급시설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사고 당일인 지난 24일 진행한 1차 협동 감식 결과 전선 단락 흔적 등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감식에서는 목욕탕 일부를 해체해 설비를 확인하는 한편, 탕 내 기포 발생기 등 전선 누전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 곽도현 기자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함께 약속하고 함께 지킵니다

월급 **2,060,740원**  
(주40시간 근무시)





## 野 “한동훈 ‘민심법정’에…아바타 가능 무대”…반사이익론 경계도

‘김건희 특검’ 수용 압박…“韓 말한 대로 범죄 있으면 수사하는 게 국민 상식”



더불어민주당 흥의표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임명이 확실시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향후 혁신을 이끌 가능성을 평가 절하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수용이 한 지지자의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여부를 기준할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며 여권의 특검 수용도 거듭 압박했다.

정철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혁신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인데 혁신할 수 있

겠나,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수 있겠나, 검사 공천을 배제할 수 있겠나”라며 “한동훈 비대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적었다.

박주민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분은 법무부 장관일 때도 그냥 어떤 공직자로서의 공명정대함이나 중립성이 아니라 한쪽을 강하게 편드는 편향성을 보여줬다”며 “이제 정치인이 되셨으니 더 편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주

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목소리들도 터져 나왔다.

홍의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전 장관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비대위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한전 장관이 늘 검사 시절, 법무부 장관 시절 말한 대로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그동안 한 전 장관은 검사로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법정에 섰겠지만, 이제는 건전이 ‘민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가 그가 ‘윤석열 아바타’인지 아닌지 가늠할 가장 첫 실험대이다 중요한 실험대”라고 지적했다.

다면 당내 일각에서 나왔던 반사이익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민주당 자체 혁신을 토대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팽구라는 우리 안의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며 “민주당 내 다양한 세력을 멋지게 통합하는 실력을, 민생 혁신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썼다.

장 의원은 라디오에서 “등판 전에는 ‘올테면 오리’는 메시지로서 팽구지만, 등판 후에는 총력전”이라며 “등판 후에 방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민주당이 조금 더 경계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 정상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수용 등 한 전장관이 해야 할 숙제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 서정수 기자

## 강정애 보훈장관 “국가유공자 보상·지원의 질 대폭 개선하겠다”

강정애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해 국가의 영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보훈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백년대계”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보훈이 과거의 희생과 현

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적 근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버지는 6·25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으셨고, 시댁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집안”이라며 “제가 보훈부 장관으



로 임명된 것은 보훈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훈 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행정을 펼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합리화해 보상과 지원의 질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유공자의 혁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보훈병원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복 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며, 모든 국민이 평소 자연스럽게 보훈 문화를 접해 보훈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민석호 기자

##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은 범죄…검찰 수사의뢰”



등이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 명분으로 활용한 것은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도 변호사를 공동 선임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아울러 당시 뉴스타파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은 180여 건이나 접수됐으며, 또한 뉴스타파 관련 심의는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하기 전 황성우 위원장 대행의 단독 부의원 행사에 따라 이미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라 민원 제기와는 무관했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고통을 겪은 민원인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도 이번 사안과 관련,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해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범죄 혐의가 소멸할 수는 없고 해당 정보는 방심위 직원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자료”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방심위 직원은 형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이 적용된다.

/ 채경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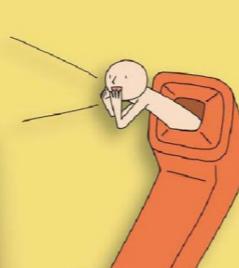
## 도내·마경 특별시장

### ‘고립 위기가구 징후’

- ☒ 광고지와 우편물이 쌓여있어요
- ☒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체납되고 단전 등 안내문이 붙어있어요
- ☒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녀요
- ☒ 배달음료가 며칠째 놓여있어요
- ☒ 집에서 악취가 나요
- ☒ 집 앞에 슬병이 많이 보여요

- |        |                          |
|--------|--------------------------|
| 의원·약국  | 지병으로 약을 처방받던 분이 오시지 않아요. |
| 슈퍼·편의점 |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술을 자주 사가요.   |
| 방문인력   | 건강이상, 생활고 등이 보여요.        |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보이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알려주세요!!**



신고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해주세요

종로구 02-2148-1121	동대문구 02-2127-5001	노원구 02-2116-3291	강서구 02-2600-1120	관악구 02-879-5889
중구 02-3395-1004	중랑구 02-2094-1615	은평구 02-351-8888	구로구 02-860-3098	서초구 02-2155-8339
용산구 02-2199-7088	성북구 02-1577-3178	서대문구 02-330-1004	금천구 02-2627-1004	강남구 02-3423-6029
성동구 02-2286-7942	강북구 02-901-7300	마포구 02-3153-6267	영등포구 02-2670-3964	송파구 02-2147-2722
광진구 02-450-1140	도봉구 02-2191-4379	양천구 02-2620-3333	동작구 02-820-1864	강동구 02-3425-5050

## 여야, 민생법안 협상 또 불발…野 지역의사제법 강행에 與 반발

與 “2+2 협의체 형해화”, 野 “협의체가 법안처리 장애물돼선 안 돼”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여야 2+2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여야의 쟁점 민생법안 논의 기구인 ‘2+2 협의체’가 26일 일주일 만에 다시 협상에 나섰지만, 별다른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민생법안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회의 시간은 25분에 그쳤다.

양당은 회의 시작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지역의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며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 유 정책위원장은 “지난 19일 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은 2+2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가져온 법안들을 일방통행식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2+2 협의체의 존재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은 “2+2에서 협상하고 각각 10개의 의제를 가져다 놨는데 각 상임위에선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하는 것이 과연 협의 정신에 맞느냐”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늘 2+2회의를 마지막으로

신원식, 부활한 천안함 찾아 “적 도발시 수장시켜 복수하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6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13년 만에 부활한 천안함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신 장관은 천안함 생존장병들과 함께 46용사 추모비를 참배한 뒤 “산화한 46위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은 진정한 승리자였다”며 “2함대의 역사는 서해를 굳건히 지켜온 승리의 역사”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 수호자로 돌아온 천안함은 이순신 함대 거북선과 같이 우리 군

의 선봉장으로서, 적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가차 없이 수장해 선우들의 원한을 복수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새롭게 배치된 천안함에 대해 “대잠능력 등 이전보다 훨씬 보강된 첨단전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적이 도발하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즉·강·깥’(즉시,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응징해 적이 향후 수년간 완전히 전투능력을 상실하도록 초토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조영민 기자



## 가자지구 찾은 네타냐후 “긴싸움” 천명…美매체엔 평화조건 제시

WSJ 기고문에서 “하마스 파괴·가자 비무장화·급진주의 포기 선행돼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5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긴 싸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와 미국 CNN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가자지구 북부의 이스라엘군을 방문해 “누가 논하는 상관없이 종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엑스(X·엣 트위터)에 가자지구의 장병들과 만나는 모습 사진을 올리고 “가자지구의 영웅들에게 우리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하마스가 끌장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한 소속 정당인 리쿠드당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는 이번 전쟁이 “긴 싸움이 될 것이며, 종전에 가까워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는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파괴와 가자지구 비무장화, 급진주의 포기 등 3개 항목을 제시했다.



가자지구 방문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총리는 기고문에서 가자지구 평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첫째로, 이란의 대리인인 하마스는 파괴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는 행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는 특히 도전적인 과제인데 그 이유는 하마스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의 책임을 하마스 측에 돌렸다.

이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전단을

뿌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위험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하는 등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상자와 관련해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은 하마스와 전 세계의 다른 테러 조직이 인간 방패를 사용하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가자지구는 비무장화돼야 한다”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지구를 비무장화할 것이라

는 기대는 몽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안 가자지구 내 안보 통제권을 이스라엘이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가자지구는 급진주의 포기가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는 아이들에게 죽음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야 하고, 성직자는 유대인 살해 설교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 같은 기고 내용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가자지구 통치권을 넘기지 않고 전후에도 가자지구에 군을 주둔시키겠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기존 입장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 불가를 골자로 한 이른바 ‘가자 4원칙’을 선언, 이스라엘이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팔레스타인 문제의 장기적인 해법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2개의 독립국가를 인정하는 ‘2국가 해법’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 백도영 기자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프간 여학생들

“이제 학교에 못가”…아프간 6학년

여학생들 눈물의 졸업

“졸업은 원래 우리가 7학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반 친구들은 모두 졸업했고 매우 실망했어요.”

이달 11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한 초등학교에서 마지막 수업을 들은 여학생 바하라 루스탐(13)의 목소리는 슬프게 가리앉았다.

25일 AP 통신에 따르면, 루스탐은 탈레반의 여성 교육 제한 조치에 따라 중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다. 루스탐은 여학생에게는 졸업식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탈레반 방침으로 인해 이렇다 할 기념행사도 없이 학교생활을 마쳤다.

하지만 그는 공부 의지가 강해 집에서 교과서를 열심히 읽고 있다. 2021년 미군의 철수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은 여성 교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탈레반은 재집권 초기에 여성과 소수자들의 권리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점차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하면서 여성의 권리가 급속도로 약화됐다.

특히 여성에게는 초등학교 6년 이후의 교육을 금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고등교육 접근권을 박탈했다.

또 공공부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여성의 취업을 제한해 많은 여성 이 일자리를 잃었다.

카불의 또 다른 여학생 세타예쉬 사해브즈(13)는 꿈을 이루고 싶지만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어 슬프다고 말했다.

그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 공부도 할 수 없고, 학교에도 못 간다”며 깊은 실망감을 표했다.

로자 오투나바에바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단장은 탈레반 정책으로 아프간 여성들이 여려 방면에서 나날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프간 교육부가 최근 남학생만 다니는 종교학교 마드리사에서 전연령의 여성이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현대 교육과목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 신민경 기자

## 멜라니아 잠행 미스터리…대선 앞두고 두문불출에 궁금증 증폭

트럼프 선거운동·재판 등에 모습 나타내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아 한종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올해 초 아이오와주에서는 멜라니아의 사진과 ‘실종’, ‘이 여성은 본 적이 있느냐’는 문구, 마리라고의 경비실 전화번호가 실린 실종자 전단이 나돌기도 했다.

멜라니아가 이처럼 잠행을 계속하면서 남편의 선거 운동에서 멜라니아가 어떤 역할을 할지,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경우 어떤 영부인이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아이오와주에서 한 연설에서 자신이 유세 무대에서 춤을 추거나 하면 멜라니아가 “그건 대통령답지 않다”고 만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팜비치의 주변 인사들은 멜라니아가 자기 가족, 특히 유일한 친자인 17살 마내 아들 배런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뽑히면 성인이 되는 배런의 백악관 생활이 언론의 주목을 훨씬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머는 “멜라니아는 마리라고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곳에서 이상하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멜라니아는 계다가 남편의 선거운동이

러라고 내 미용실 등지에서 마리라고 회원들의 눈에 자주 띠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요새는 트럼프 가족이 사는 곳이 마리라고의 메인 허우에 옆에 있는 데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마리라고 회원들은 전했다.

리머는 “멜라니아는 마리라고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곳에서 이상하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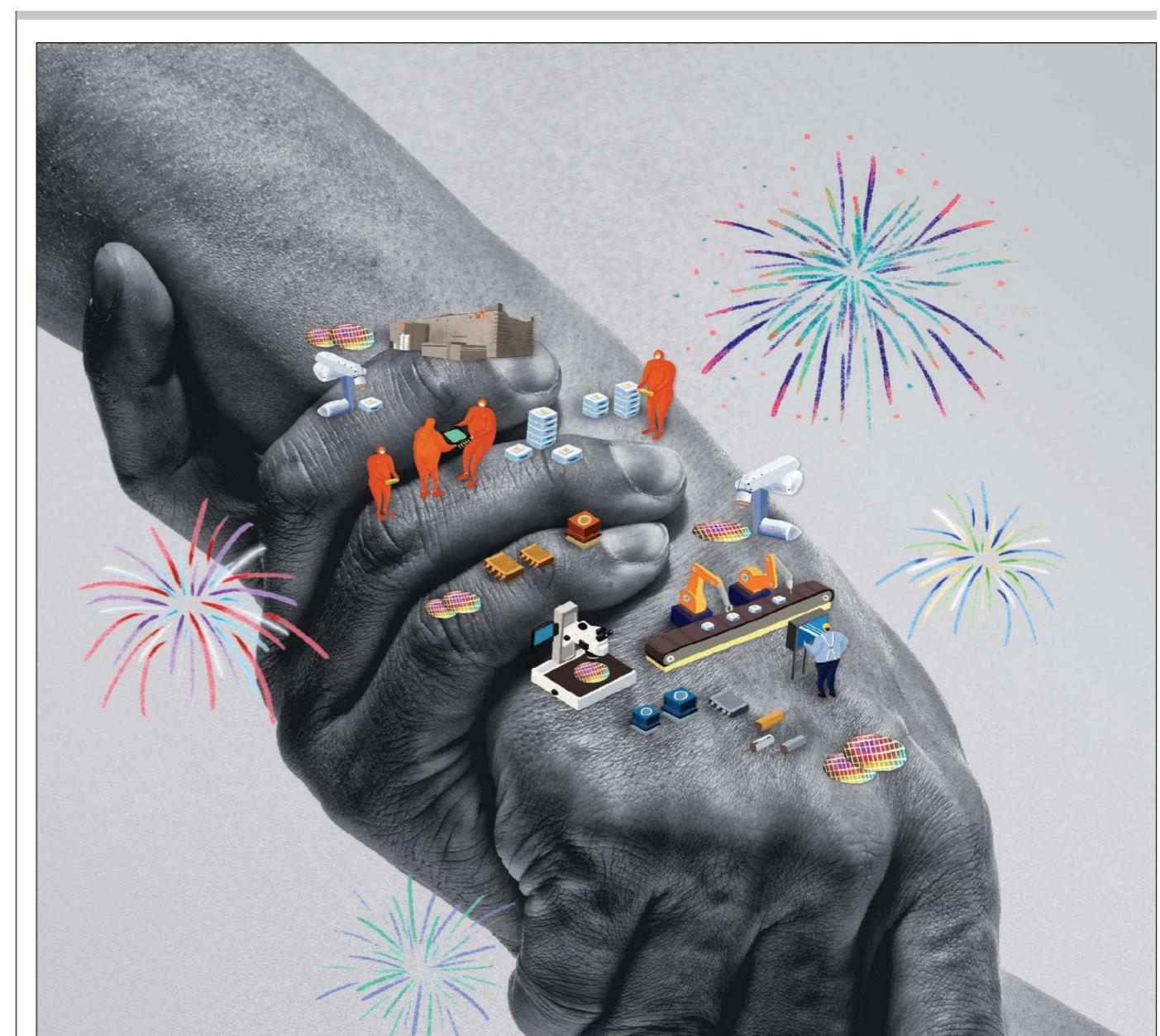
멜라니아는 계다가 남편의 선거운동이

나 각종 재판 등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

멜라니아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멜라니아와 친구였다가 사이가 멀어진 뒤 그에 대해 폭로하는 책을 쓴 기업인 스템파니 윈스턴 울코프는 워싱턴포스트(WP)에 멜라니아가 공석에서 자취를 감춰도 남편의 선거운동을 계속 지지할 것으로 말하기도 했다.

/ 한호준 기자



함께 크는 기술  
함께 만드는 미래

SK하이닉스는 첨단 기술로  
함께 성장하며 더 멀리 나아갑니다

협력사 인재채용 및 미래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프로그램 청년 Hy-Five Hy-Po  
반도체 전문 분석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분석측정지원센터

환경 미숙에 선제 대응하는 반도체 기업 연합 ECO Alliance

## 나이지리아 또 유목민·농민 유혈충돌…최소 160명 사망

나이지리아 중부 지방에서 무장단체의 민간인 공격으로 최소 160명이 숨졌다. 지난 5월 100여명이 숨진 후 최악의 유혈사태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유목민과 농민 부족 간 민족·종교 갈등으로 몇 년째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중부 플라토주에서 주말새 무장 단체들의 연쇄 공격이 발생, 최소 160명이 숨지고 300여명이 부상했다고 지방 정부가 밝혔다. 사망자는 전날 밤만 해도 17명으로 집계됐지만, 이후 급격히 불었다.

플라토주 지방정부 의장대행 만데이 카사는 AFP에 “(무장 단체의) 공격이 23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계속되면서 11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무장 단체들이 최소 20개 마을을 덮쳤으며, 조직화된 공격이었다고 전했다.

현지 적십자는 플라토주 보코수 지역 18개 마을에서 104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격은 보코수 지역에서 시작해 바르킨 라디 지역으로 번졌으며, 25일 오후에도 총성이 계속해서 들렸다고 AFP는 전했다.

캘레브 무트프왕 플라토 주지사는 이번 공격에 대해 “야만적이고 잔인하며 정당치 못하다”고 비난했다.

플라토주는 “무고한 민간인을 향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플라토주 의회 딘슨 출룸 의장도 “우리는 죽음의 상인들의 계략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와 지속적인 평화 추구를 위해 단결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엑스(엣 트위터)에 “나이지리아 당국은 플라토주의 농촌 지역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치명적인 공격을 끝내지 못했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사건이 발생한 플라토주는 중부에 있는 고원지대로, 나이지리아에서 민족, 종교적 구성이 다양해 ‘미들 벨트’(middle-belt)로 불리는 지역이다.

생계 기반인 목초지와 농지를 둘러싸고 유목 민족과 농민 부족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유목 민족은 대부분은 이슬람교, 농민 부족은 기독교인 토에 종교와 인종, 정치적 문제까지 얹혔다. 여기에 급속한 인구 증가와 기후 악화로 천연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폭력 사태가 멈추지 않고 있다.

나이지리아 서북부와 중부에서는 ‘반디트’라 불리는 현지 무장단체가 마을을 급습, 약탈하고 주민들을 무자위 납치하고 있다.

/ 김희성 기자

E 이로운  
S 세상을  
G 그리다

BNK금융그룹은 ESG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음 세상을 그려가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남궁돈 만두명장  
since. 1988



“진짜 하나뿐인 내 편 맞네!”

소상공인과 함께 올고 옷으며  
늘 곁에 있는 **하나금융그룹**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목2동 ‘남궁돈 만두명장’ 남궁돈 사장님

소상공인의 하나뿐인 내 편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금융비용 절감 지원

실패 없는 도전을 위한  
청년 창업 컨설팅 지원

지역과 상생을 위한  
지역 상권 살리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한류신문-검찰연합일보-사랑&희망나눔운동본부 ‘2023 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 시장식’ 성료

평소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세계한류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2023 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 시장식이 12월 22일(금) 오후3시 종로YMCA 대강당(2층)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세상의 어느 구석까지 한류의 꿈은 흐른다’라는 주제로 ‘2023 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 시장식이 12월 22일(금) 오후3시 종로YMCA 대강당(2층)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세계한류문화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류신문, 검찰연합신문, 사랑&희망나눔운동본부가 주관한 시장식에는 한옥, 한복, 한글, 한지, 한식, 국악부문을 비롯하여 한류문화의 각 분야에서 부문별 대상을 수상하였다.

정인걸(가수)씨와 강보라(모델겸 가수)씨 그리고 박건(가수)씨의 오프닝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코리아엔젤스민속무용

예술단 문경숙 단장의 화려한 진도북춤 공연이 이어졌다.

이날 대회사를 통해 장학(한류신문, 검찰연합일보 회장) 대회장은 “한류문화는 이제 세계의 문화이며 세계인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오늘의 주제처럼 세계의 어느 구석까지 한류의 꿈이 흐르도록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하여 한류세계화를 위한 성대한 행사를 준비한 한류신문과 검찰연합일보(회장 장학)과 사랑&희망나눔운동본부(마홍배 총재)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한류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적 자부심을 느끼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인찬 총장(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은 환영사를 통하여 “21세기 한류시대를 맞아 오늘날 문화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 속에서 친연한 문화를 이어 왔기 때문입니다”라며 이번 시장식을 통해 한류의 무한한 가치를 공유하고 후대에 물려줄 문화강국의 귀중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마홍배 사랑&희망나눔운동본부 총재는 “한류의 꿈은 세계에 뿌리는 희망을 던져 주고 있다.”며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이 자리 빌어 이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께 송구함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는 폐회사를 통하여 “한류문화는 바로 그 시작이 우리라는 의미이고 이렇게 함께하게 된 모든 과정”이라며 “2023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자랑스런 수상의 영광이 모두에게 돌아가 새해의 희망이 되기를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시장에 대한 심사평에서 심사 위원장 우성봉 위원장은 “세계한류문화 공헌대상 모집이 발표되고 나서 참으로 놀라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직조서와 신청서를 보내왔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위원들과 함께 심사를 하였다고 자부한다.”며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이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께 송구함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대상 수상이 끝난 후에 한류공로자에 대한 공로패 수상이 이어졌고 많은 축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세계 속의 한류를 언론의 힘으로 동행하고 있는 한류신문(회장 장학)은 종이 신문과 인터넷 신문으로 지난 17년간 꾸준히 세계인의 사랑을 담아 구석구석 한류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해를 정리하는 시장식에서 우리는 다시 한류의 꿈을 세계에 뿌리는 희망을 던져 주고 있다.”

/ 송진영 기자

## 홍준표 시장 “군-민간 공항 통합건설로 신공항사업 앞당겨야”



도축장의 인적 쇄신 등 경영 혁신을 하라고 강조했다.

/ 배승호 기자

### 서울시,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참여 500가구 모집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핵심 복지정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들 봄청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체워주는 소득보장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이와 함께 홍 시장은 ‘에어시티’로 조성되는 군위군에 기업 유치가 용이하도록 원형지 분양을 적극 추진하라고 했다. 원형지는 간선도로 등 기초적인 기반 시설만 갖춘 토지를 말한다.

홍 시장은 내년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출범과 관련해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군 공항과 민간 공항 통합 건설 방안을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홍 시장은 이날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분리 건설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민간 공항에 대한 업무를 대구시가 위임받아 통합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공항건설단에 지시했다.

지방대 위기와 관련해 대학정책국을 신설할 계획도 밝혔다.

## 구로경찰서, 관내 모든 경로당에 112연결 비상벨 설치



구로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

서울 구로경찰서는 구로구청·구의회와 협력해 관내 모든 경로당에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박재석 구로경찰서장은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노인의 평온한 일상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노건우 기자



### 서울시 ‘손목닥터9988’ 전용 앱 28일 운영 재개

서울시는 접속지연 문제로 일시 중단

했던 ‘손목닥터 9988’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을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을 예방한다.

기존 참여자 38만명은 오는 28~31일 연령별로 분산해 등록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연령 구분 없이 등록할 수 있다.

손목닥터9988은 시가 시민의 건강생활 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선도적으로 시작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다.

내년 1월 8일부터는 장기간 기다려 준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용 앱을 활용한 ‘걷기 기념(포인트) 3배 적립 이벤트’를 개최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서울 페이 머니로 전환해 병원, 약국, 편의점 등 시내 11만여개 매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앱을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 앱을 운영하면서 걷기 철린지 개최 등 최상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현욱 기자

**서울시,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참여 500가구 모집**

도축장의 인적 쇄신 등 경영 혁신을 하라고 강조했다.

/ 배승호 기자

**나를 이기고  
세계를 이기다**

수십만 번의 리시브와 수백만 번의 스매싱 땀과 투호를 쏟았습니다

삼성생명 선수들이 코트에 새긴 투호의 발자국 대한민국 배드민턴 세계 정상이라는 역사

삼성생명은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안세영 · 서승재  
2023 세계배드민턴연맹  
올해의 선수상 수상

정재숙 · 허광희 · 박경훈 · 최지훈 · 안윤성 · 최평강 · 김병재 · 이소율 · 이연우 · 이유림 · 유서연 · 김유정

자랑스러운 ‘삼성생명 배드민턴단’입니다

금융의 모든 순간 \*

\* EPISODE 01

# 모든 것이 돈이 되는 세상

NONGHYUP BANK PRESENTS

금융서비스부터 생활서비스까지  
모아주고 아껴주고 쓸수록 돈되는 디지털 뱅킹이니까

금융세상을 키우는 올원적 대답  
 NH 올원뱅크



조건없이 이체수수료 0원에  
다양한 예적금 우대금리까지

현금처럼 사용하는 NH포인트  
환율로 돈버는 내맘대로외화BOX

통신비 아껴주는 알뜰폰부터  
화딜 등 쇼핑할인까지 다양한 서비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  
(1681-3000, 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 2023-5076(2023.1.23 ~ 2024.10.31)

## “시민에 심려끼쳐 죄송”…청주시 눈썰매장 붕괴사고 사과

청주시는 지난 24일 발생한 상당구 지북동 눈썰매장 이동통로 붕괴사고에 대해 공개사과했다.

신현대 부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북동 눈썰매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를 본 분들과 시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 눈썰매장은 민간업체가 청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 23일 개장한 지 하루 만에 비닐하우스 이동통로가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신 부시장은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청주시 기자회견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고로 다친 시민에 대해 상해

후유장해 심사를 거쳐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눈썰매장 운영업체도 보장규모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인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후 4시 29분께 슬로프에 뿌리던 인공 눈이 이동통로에 쌓이면서 비닐하우스 지붕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 붕괴하면서 발생한 이 사고로 당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발생 후 설치된 수습대책본부에서 부상 신고를 접수한 결과 8명이 추가로 목, 발목 등의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안내했다고 시 측은 밝혔다.

/ 조규현 기자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 A씨가 18일 오후 청주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 청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밀린 월세 내려고”

## 청주 노래방 업주 살해범 구속 송치

청주 청원경찰서는 26일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 등)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6분께 청주시 율량동의 4층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 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가 범행 직전 다른 상가 두 곳에도 들렸다가 손님이 많아 벌길을 돌린 사실을 확인, 이에 대해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데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검

토했으나, 오랜 은둔생활로 인해 파악할 수 있는 삶의 궤적이 제한적인 데다 형설 수설해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별다른 정신질환 이력은 조회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42시간여 만인 지난 16일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 박창수 기자

## 이화영 변호인, 법관 기피 신청 이어 수사 검사 탄핵 청원

### “季에 허위진술 강요하며 사건 조작” 주장…옥중 노트 일부 공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 이 재판 중인 법관 기피 신청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검사들이 피의자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을 협박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해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이에 사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빌의하고 결의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탄핵 청원 대상은 당시 수사 검사와

부장검사 등 2명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6월 3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19회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를 제시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9년 7월 29일 아침 10~11시경 (이재명 도지사에게) 제가 보고드렸을 거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 내용이 검사들에게 들었다고 주장하는 발언들이 적혀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옥중노트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틈틈이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최근 한두 달 사이 구치소에서 구매한 노트에 (회

으로 희유하게 했으며, 검사가 이화영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겁을 주고 이재명 지사만 연결시키면 선처할 수 있다고 직접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 전 부지사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옥중노트’ 일부를 제시했다. 공개된 옥중노트에는 “○○○ 검사,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을 김성태가 대납해 준 것을 인정해달라” 등이 전 부지사가 검사에게 들었다고 주장하는 발언들이 적혀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옥중노트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틈틈이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최근 한두 달 사이 구치소에서 구매한 노트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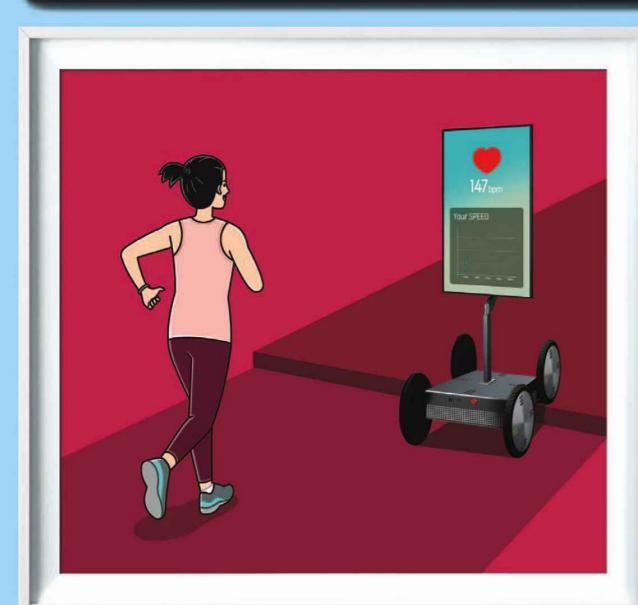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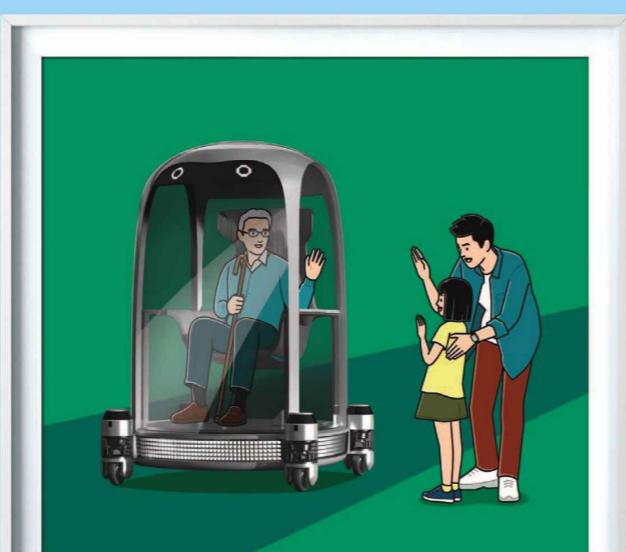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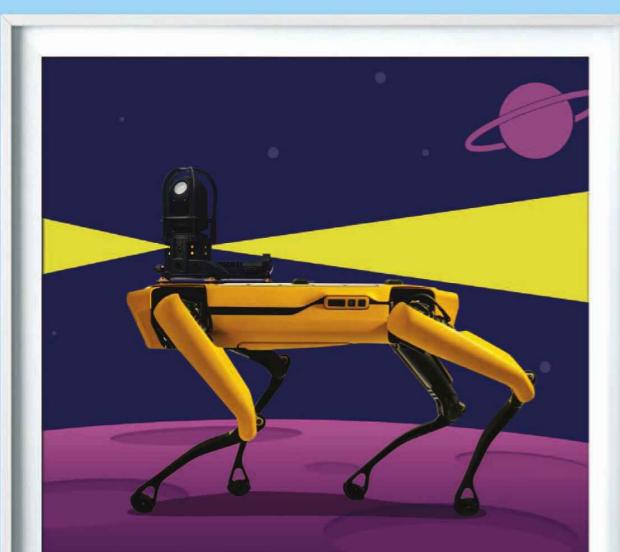
유와 협박 등)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추후 옥중노트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협박,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진술을 강요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청원은 부당한 국권력으로부터 1년이 넘는 동안 자유를 박탈당한 한 개인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소개정원(더불어민주당 권리옹호위원회) 방식으로 제출된 이날 청원은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채택 또는 폐기 결정이 내려진다.

변호인이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지난 10월 이후 두 달 넘게 중단된 상태다.

/ 최재원 기자



모든 리더,  
새로운 경험을 주거나  
놀라운 혁신이 되거나  
소중한 추억을 주는  
모빌리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경험을 주거나  
놀라운 혁신이 되거나  
소중한 추억을 주는  
모빌리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도록

새로운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HYUNDAI  
MOTOR GROUP



모빌리티 스마트移动  
현대차그룹은 미래 비전을 만드는데

## 전북도 “갑질·음주운전 근절합시다” 캠페인



전북도 감사관실은 26일 도청 1층에서 출근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및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펼

쳤다.

캠페인은 연말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과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

기 위해 ‘갑질과 음주운전은 공직사회의 암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도 출근길에 ‘갑질·음주운전 절대 하지 않기 다짐 서약’을 한 뒤 ‘직장 내 갑질 타파, 음주운전은 폐가망신’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김 지사는 “갑질과 음주운전은 타인의 행복과 건강을 송두리째 잊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도청 내 갑질과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되도록 캠페인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황순길 기자



“영천마늘피자 맛보세요”  
내년 1월 25일 전국 출시

경북 영천시와 피자알볼로(ALVOLO F&C), 영천 신녕농협은 26일 영천마늘피자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피자알볼로는 신녕농협에서 영천마늘을 납품받아 내년 1월 25일 전국 300여개 매장에서 영천마늘불고기 피자와 영천마늘페퍼oni피자를 출시한다.

앞서 영천시와 영천마늘농촌융복합사업추진단 등은 영천마늘피자 개발을 위해 피자알볼로 본사를 여러 번 방문해 업무협의를 가졌고, 지난 10월 영천와인페스타 때 ‘영천마늘피자 나눔시식회’를 열기도 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영천마늘의 알싸하고 깊은 맛을 세계인의 음식인 피자에 담았다”며 “앞으로 영천마늘을 활용한 더 많은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KTX광명역~서울 목동’ 200번 일반좌석버스 운행 시작



권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일직동, 소하동, 하안동 등 광명 남쪽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광명역세권 광역교통 보완 대책으로 KTX광명역과 서울 서남부권 연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200번 일반좌석버스 시승식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일직동에서 목동을 대중 교통으로 가려면 몇 번 갈아타고 힘들었다”며 “200번 일반좌석버스가 개통해 한 번에 갈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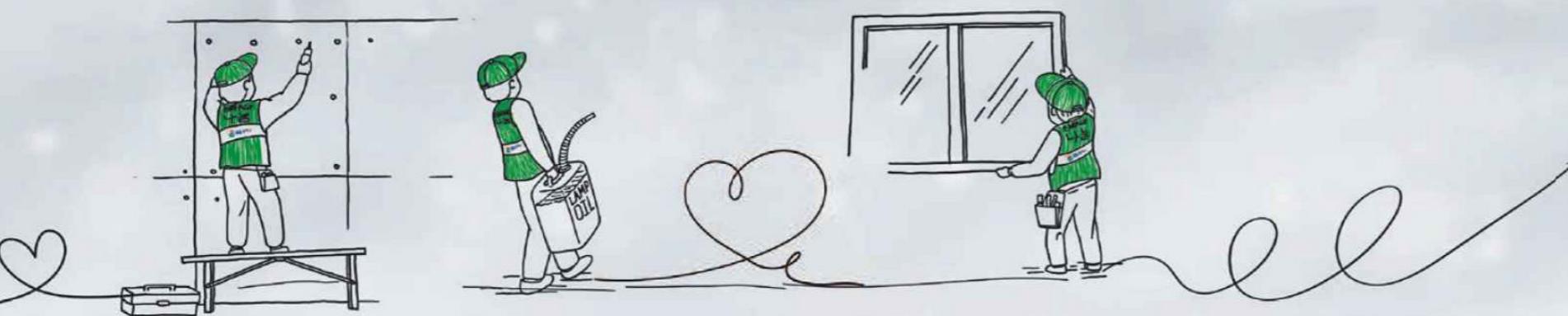
/ 박정민 기자



에너지  
나눔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GS칼텍스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유 지원에서부터 단열, 창호, 고효율 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까지 쉼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는 일,  
GS칼텍스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I am  
your  
Energy

GS 칼텍스

## 반환점 돈 배구…여자부 현대·흥국 양강, 남자부 우리카드 돌풍

### 남녀부 3위 대한항공과 GS칼텍스는 판도 변화 노려

프로배구 2023-2024 V리그 여자부는 예상대로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이 선두 싸움을 벌이며 반환점을 돌았다.

반면 남자부에서는 우리카드와 삼성화재가 돌풍을 일으키며 1, 2위에 자리했다.

6라운드까지 치르는 V리그 정규리그는 25일 1~3라운드 일정을 마쳤다.

현대건설은 승점 41(13승 5패)로, 흥국생명(승점 39·14승 4패)을 승점 2차로 제치고 3라운드를 끝냈다.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은 나란히 9연승을 한 번씩 달성하는 등 1~3라운드 내내 1, 2위 자리를 놓고 다했다. 양효진, 이다현을 앞세워 블로킹 득점 1위(세트당 2,400개)에 오른 현대건설과 김연경, 엘레나 브리제노비치(등록명 엘레나) 쌍포를 내세운 흥국생명의 경쟁은 V리그 여자부 1~3라운드를 뜨겁게 달궜다. 1, 2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흥국생명이 현대건설에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했지만, 3라운드에서는 현대건설이 흥국생명을 세트 스코어 3-1로 누르며 1위 자리를 지켰다.

우리카드는 승점 39(14승 4패)로, 삼성화재(승점 34·13승 5패), 대한항공(승점



20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경기. 흥국생명 김연경이 공격하고 있다.

34·11승 7패)의 추격을 뿌리쳤다. 3시즌 연속 통합우승을 달성한 '디펜딩 챔피언' 대한항공과의 올 시즌 3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승리해 자신감은 더 커졌다.

올 시즌 우리카드는 주전 세터로 2004년생 현태준을 내세우는 등 '재창단 수준'으로 구성원을 확 바꿨다.

신영철 우리카드 감독은 "이번 시즌 우리 팀은 재창단 수준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애초 하위권 전력으로 분류됐지만,

아웃사이드 히터 김지한과 세터 한태준이 성장하면 상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다"며 "모든 선수가 잘 따라줘 기대된다"고 했다.

현재까지 성적은 기대 이상이다. 실제 우리카드는 공격 성공률 52.60%로 이 부분 7개 구단 중 4위에 그쳤다.

하지만, 디그 세트당 10.319개(2위)의 촘촘한 수비를 펼치고, 블로킹 득점 세트당 2,478개(1위)의 탄탄한 벽을 쌓으면서

선두를 질주했다. 삼성화재는 고비마다 터진 요스바니 에르난데스(등록명 요스바니)의 강력한 서브와 부쩍 성장한 미들블로커 김준우의 활약 등으로 '명가 재건'의 꿈을 키웠다.

V리그에서 가장 많은 8개의 우승 트로피를 수집했지만, 최근 5시즌 연속 하위권에 머문 삼성화재는 2017-2018시즌 이후 6시즌 만에 '봄 배구'를 치르고자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남녀부 1, 2위 모두 아직은 등 뒤가 따깝다. 남자부 3위로 3라운드를 마친 대한항공은 '4시즌 연속 통합우승'을 위해 4라운드부터 시동을 걸겠다는 각오다. 토미 텔리카이넨 대한항공 감독은 25일 OK 금융그룹을 세트 스코어 3-0으로 완파한 뒤 "더 강한 모습으로 남은 4~6라운드를 치르겠다"고 후반기 출사표를 올렸다.

1~3라운드 득점(514점)과 공격 성공률 (45.66%) 1위를 차지한 지젤 실바(등록명 실바)를 보유한 여자부 3위 GS칼텍스(승점 34·12승 6패)도 최근 4연승 행진을 벌이며 '양강'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을 압박하고 있다.

/ 최준용 기자

## 우즈와 안병훈의 공통점 '한방'에 세계랭킹 대폭 상승 주인공



세계랭킹 892위에 올라가 있다.

안병훈은 지난 8월 원瞪 챔피언십 준우승으로 79위에서 57위로 뛰어올랐다.

앞서 안병훈은 7월 스코틀랜드 오픈 3위로 131위였던 세계랭킹을 85위로 끌어올린 바 있다.

올해 짧은 기간에 세계랭킹을 가파르게 끌어 올린 선수로는 루이 우스트하즌(남아공)을 빼놓을 수 없다.

LIV 골프로 아직하면서 세계랭킹이 441위까지 내려갔던 우스트하즌은 이달 들어 DP 월드투어 알프레드 던힐 챔피언십과 모리셔스 오픈에서 2연승하면서 133위까지 상승했다.

역시 LIV 골프로 옮긴 뒤 세계랭킹 하락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던 호아킨 니만(칠레)도 DP 월드투어 호주오픈 우승 한 번으로 82위에서 59위로 올랐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페덱스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 우승으로 79위에서 57위로 올라온 루커스 글로버(미국)도 한방에 힘입어 세계랭킹이 쑥 오른 선수에 됐다.

/ 조영민 기자

### '조훈현 국수 배출' 영암군, 바둑팀 창단



우리가 가장 영입하고 싶어 한 선수가 이정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후에게는 상대 투수의 구종을 빨리 알아채는 능력이 있다"며 "이런 특별한 기술은 분명히 MLB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콘택트 능력에 주목했고, 역대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한국인 최고이자, 아시아 야수 최대 규모인 6년 1억1천300만 달러(약 1천469억원)의 대형 계약을 했다.

이번 비시즌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선수도 이정후다.

계약을 마친 샌프란시스코 선수 중 이정후는 2024년 연봉 순위 9위다. 하지만, 6년 동안 받는 총액의 평균 금액으로 순위를 나열하면 가장 위에 있다.

/ 김강우 기자

전남 영암군이 바둑팀 '마한의 심장 영암' 발대식을 열고 바둑리그 참가를 선언했다. 바둑팀 창단은 조훈현 국수를 배출한 바둑 본향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군 바둑팀은 오는 28일부터 진행되는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 지역 이름으로 처음 출전한다. 마한의 심장 영암 팀은 한해원 감독이 지휘한다.

한 감독은 '2021-2022 KB 바둑리그 EDGC' 서울 'YOU WHO' 팀을 이끈 경험 있다. 선수는 1지명 안성준 9단, 2지명 / 박현미 기자

### MLB닷컴 "샌프란시스코 팬 소원은 이정후가 개성을 발휘하는 것"



MLB 샌프란시스코 입단한 이정후 기자회견

크리스마스에도 '한국에서 온 바람의 순자'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름이 MLB닷컴을 장식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흄

페이지 MLB닷컴은 25일(이하 현지시간) '메이저리그 각 구단 팬의 소망'을 선별해 게재했다.

MLB닷컴이 꼽은 샌프란시스코 팬들

의 바람은 '이정후가 팀에 개성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매체는 "이정후가 스타인지 아닌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색이 뚜렷하지 않았던 샌프란시스코가 바라던 선수인 건 확실하다. 이정후는 샌프란시스코가 원하는 경기력과 개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MLB닷컴이 말한 이정후의 개성과 경기력은 파르한 자이디 샌프란시스코 사장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이디 사장은 지난 15일 열린 이정후 입단식에서 "공격적인 면에서 우리 팀은 콘택트 능력을 갖춘 선수가 필요했다. 이는 최근 메이저리그가 추구하는 야구이기도 하다"며 "이번 비시즌에

우리가 가장 영입하고 싶어 한 선수가 이정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후에게는 상대 투수의 구종을 빨리 알아채는 능력이 있다"며 "이런 특별한 기술은 분명히 MLB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콘택트 능력에 주목했고, 역대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한국인 최고이자, 아시아 야수 최대 규모인 6년 1억1천300만 달러(약 1천469억원)의 대형 계약을 했다.

이번 비시즌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선수도 이정후다.

계약을 마친 샌프란시스코 선수 중 이정후는 2024년 연봉 순위 9위다. 하지만, 6년 동안 받는 총액의 평균 금액으로 순위를 나열하면 가장 위에 있다.

/ 김강우 기자

## 꿈이 깃든 기술력에 기술보증기금이 희망을 D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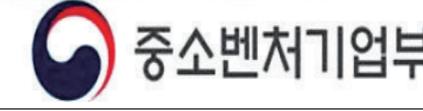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개방형 기술혁신 전담 기관



기업에서 꼭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고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중소벤처 개방형 기술혁신의 모든 과정을 기보가 지원합니다.  
스마트 테크브릿지(<http://tb.kibo.or.kr>)

기술기업의 start up부터 scale up까지 함께하는 혁신성장플랫폼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이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입니다.



# '노량'·'서울의 봄' 성탄절 연휴 극장가 쌍끌이 흥행

'노량' 160만명·'서울의 봄' 116만명

이순신 장군 최후의 전투를 그린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이하 '노량')와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성탄절 연휴 극장가에서 쌍끌이 흥행을 이어갔다.

26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김한민 감독의 '노량'은 지난 23~25일 사흘간 160만2천여 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사흘 평균 매출액 점유율은 42.3%였다.

지난 20일 개봉한 이 영화는 개봉 4일째인 23일 100만 관객을, 6일째인 25일 200만 관객을 각각 돌파했다. 누적 관객 수는 223만여 명이다.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은 같은 기간 116만9천여 명을 모아 2위였다. 평균 매출액 점유율은 30.8%다.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서울의 봄' 포스터

이 작품은 개봉 한달여만인 지난 24일 천만영화 반열에 오른 데 이어 25일에는 '범죄도시 3'(1천68만여 명)를

제치고 올해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다.

'서울의 봄' 누적 관객 수는 1천73만여 명으로, 이번 주 안에 1천100만명 달성이 임박해졌다.

DC 스튜디오 신작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33만2천여 명, 9.1%), 애니메이션 '신치원! 짱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날아라 수제김밥~'(31만3천여 명, 7.9%), '트롤: 밴드 투게더'(18만7천여 명, 4.5%) 등 해외 신작들은 두 한국 작품에 밀려 큰 힘을 쓰지 못했다.

'노량'과 '서울의 봄'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이어지는 새해 연휴에도 극장가를 양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오전 8시 기준 '노량'의 예매율은 34.1%(예매 관객 수 10만1천여 명)로 1위에 올라 있다. '서울의 봄'은 32.6%(9만7천여 명)로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이다.

/ 임은희 기자



SBS 가요대전 사회 맡은 카·안유진·연준

## 아쉬움 남긴 SBS 가요대전 위조티켓 피해·텐 안전사고

SBS "위조티켓, 경찰에 수사  
의뢰"...전광판·음향도 문제 일으켜

지난 25일 열린 SBS의 연말 가요 축제 '가요대전'이 위조 티켓과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가요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26일 방송가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오후 열린 '가요대전'에 입장하려다가 보유한 티켓이 위조된 가짜라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입장하지 못했다는 후기가 게재됐다.

이에 대해 SBS 관계자는 "공연 당일 현장에서 위조 티켓과 관련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SBS 가요대전은 매년 연말 열리는 가요 행사로, 올해는 24일 오후 5시 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렸다.

특히 올해는 키, 안유진, 연준 등 인기

스타가 진행을 맡고 26개 아티스트 팀이 출연해 기대를 모았다. 작년까지 고척에서 진행한 것과는 달리 인스파이어 아래 나로 장소를 옮긴 만큼 무대와 중계 수준이 얼마나 향상될지도 관심사였다.

그러나 위조 티켓 문제와 함께 몇몇 사건이 발생하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룹 NCT의 멤버 텐은 무대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이동하던 중 리프트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현장에 있던 팬들에게 목격됐고, 이에 텐은 이를 날 새벽 팬과 소통하는 플랫폼에 '저는 팬찮다. 걱정하지 말라'며 주위를 안심시켰다.

이 밖에도 그룹 있지(ITZY)가 공연하던 중 전광판에 컴퓨터(PC) 운영체제에서 우클릭 때 나타나는 메뉴가 표시된 것이 팬들의 눈에 포착됐고, 제로베이스원 공연 중 특정 부분만 반복 재생되는 음향 사고가 나는 등 연출진의 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강성희 기자

## '고려거란전쟁' 김혁, 거란 기만한 최수종과 아찔한 대면 포착! 분노 폭발

거란의 황제 야율옹서가 자신을 기만한 강감찬을 향해 부월을 껴내든다.

24일 방송된 공영방송 50주년 특별 기획 KBS 2TV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극본 이정우/ 연출 전우성, 김한솔/ 제작 몬스터 유니온, 비브스튜디오스) 13회에서는 강감찬(최수종 분)이 거란군 종지휘관 소배암(김준 배 분)과 접선하던 중 거란의 진중으로 끌려가는 절체절명 위기에 봉착한다.

앞서 황성에 도착한 야율옹서(김혁 분)는 현종(김동준 분)이 놓친 것을 떠났다는 사실과 함께 하룻밤 만에 과주성이 고려군에 의해 학살됐다는 전령을 받고 극대노했다.

거란의 관리와 소배암은 당장 회군해 서경을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율분노(이상홍 분)는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전에는 절대로 철군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내부 분열까지 일어났다.

오늘(24일) 공개된 스틸에는 온몸을 포승 줄에 묶인 채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참담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는 강감찬의 모습이 담겨 있어 참담함을 더한다.

게다가 호위 군사들과 함께 등장한 야율옹서는 차가운 얼굴로 강감찬을 내려다보고, 끊어앉아 있는 강감찬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내뿜으며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소배암과 접선한 강감찬이 야율분노로부터 내통 의심을 받아 또 한 번 절체절명



KBS 2TV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

위기에 처한다. 과연 강감찬이 무사히 고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앞으로 펼쳐질 전개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진다.

'고려거란전쟁' 제작진은 "13회에서는 거란을 철군시키기 위해 양규와 작전을 도모한 강감찬이 소배암과 접선하던 중 실패 위기에 봉착한다.

거짓 친조 사건 이후 야율옹서와 다시 만난게 된 강감찬이 이번에도 지략을 발휘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 달라"면서 "지난 회에 이어 사극 대가 최수종의 전가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 노승만 기자

## 지드래곤, 마야 퇴치 재단

### '저스피스' 설립에 3억원 기부

의료보건·복지 등 전문가로  
자문위 구성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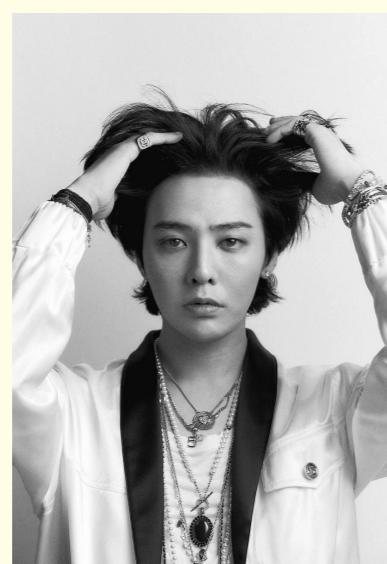
가수 지드래곤이 마야 퇴치 등을  
펼칠 재단 '저스피스'(JUSPEACE)  
설립을 위해 출연금 3억원을 기부  
한다고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이  
25일 밝혔다.

'저스피스'는 '정의'(Justice)와 '평화'(Peace)의 합성어다. 재단의 슬로건은 '평화를 수호하자 & 사랑의 정의 / 정의의 사랑'으로 정해졌다.

지드래곤은 앞서 지난 21일 손편지를 통해 "한 해 평균 마야사범이 2만명에 달한다는 사실과 청소년 마야류 사범이 무섭게 증가했지만 이들 중 치료 기관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 500명도 되지 않는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알게 됐다"며 재단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지드래곤은 이후 마야 퇴치 캠페인을 통해 마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마야 퇴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드래곤은 이후 마야 퇴치 재단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의료보건, 공공정책·행정, 복지·문화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가수 지드래곤

선별 중이다.

그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공의 활동의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최용호 갤럭시코퍼레이션 대표는 "재단은 음악을 통해 편견 없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권지용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설립돼 이에 맞는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마야 퇴치 및 중독 청소년 치료를 위한 활동"이라고 전했다.

/ 최혜원 기자

롯데칠성음료



청량한 이 순간,  
칠성사이다로부터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 지금이 제철이다



**IBK기업은행**  
**IRP**

올해가 가기 전! 연말정산



꿀맛 환급을 놓치지 마세요!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평생 0원**

i-ONE 뱅크, 인터넷 뱅킹으로 신규가입 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무료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최대 148만 5천원 세액공제**

연간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6.5%,  
148만 5천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고금리 퇴직연금 ELB 출시!**

원리금 보장,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손실 없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 제23-04205호(2023.11.23.~2023.12.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5462호(2023.11.17) [유효기간 2023.12.31]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 ※개인형IRP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해 다른 보호 상품과는 별도로 5천만원까지(운용회사별 합산) 예금자보호 ※개인형IRP에서 운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투자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원금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개인형IRP 연금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 향후 변동 가능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 유의사항> ※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는 원금지급형으로, 투자 성향은 저위험(안정추구형)으로 분류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는 개인형IRP 계좌에서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으로만 예약매수 가능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자산가격 변동, 발행회사신용위험,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세제 및 법률상 위험 등에 따라 원금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발행사 IBK 투자증권(AA, 2023.8.29, NICE 신용평가)의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 ※청약의 권유는(예비·간이) 투자설명서에 따름 ※수익률은 조건 충족 시 최대 수익률에 불과, 수익률 달성 비보장, 투자전 확인 ※투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원금손실 가능 ※원금 부분 지급이나 원금지급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시 최대 손실을 초과 가능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